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22일) 2020년 9월 9일 수요일

20년 이어진 3000배 난치병 어린이 살리다

조계종복지재단 '3000배 철야정진' 20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희귀질환으로 알려진 기텔만 증후군으로 고통받던 손민지(19차 대상자) 양에게 2019년은 잊을 수 없는 한해다. 기텔만 증후군은 신장 기능 이상으로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 주요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 일상생활 중에도 갑작스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신체기능이 크게 저하돼는 난치병이다.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가족의 시름만 커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들이 찾아왔다. 손양의 손에 노란색 단주를 채워주며 따뜻한 격려의 말로 용기를 줬고, 부모님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전국 사찰에서 손양을 위해 치료비 1000만원을 모아 지원해 줬다고 했다. 치료비의 감사함은 물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양의 쾌유를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근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을 앓아온 이보람 · 우람 형제(13차)도, '선천성 대사질환요소회로 OTC'라는 희귀병을 앓았던 박민수 어린이(13차), 소아당뇨로 매일 인슐린 주사와 혈당검사를 받아야 했던 박해룡 어린이(19차) 역시 인생을 바꿀 만큼 크나큰 희망을 선물 받았다. 모두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의 수혜대상자들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의 대표적인 나눔프로그램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이 올해 꼭 20년을 맞았다.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은 전국 사찰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절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 일배 당 100원의 기금으로 환원돼 난치병 환아들의 치료비로 지원되는 방식이다. 마음만 담은 기부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종교와 성별, 국적을 떠나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어린이들이며, 후원자는 불자와 시민들이다. 그야말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나눔으로 이어진 법석이었던 셈이다.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에서 3000배 철야정진에 마음을 보탠 후원자만 1만5000여명.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모은 정성은 13억 200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으로 이어졌고, 국내외 난치병 환아 445명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선사했다.

치료비 지원으로 인한 감동 사례만 수십 건이다. 특히 이 중 2011년 당시 모야모야병으로 투병중이던 고주현 어린이(11차)는 수술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차례 수술 이후 크게 호전된 모습으로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을 뿐 아니라, 난치병 친구들의 쾌유를 바라며 '발원문'을 낭독해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2001년 첫 시행 당시에는 108배 정진 형태였다. 당시 서울 조계사에 500명이 모여 600만원을 모연했고, 난치병 환아 6명에게 치료비로 전달됐다. 1박2일간 3000배 정진을 통해 모금하는 현재의 방식이 정착된 것은 5차 정진부터다.

8차 법회에서 처음으로 모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섰고, 13차 때는 1억1000만원을 달성했으며 지금까지 적게는 9400만원, 많게는 1억6800만원까지 모연되는 등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덕분에 난치병 환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도 증가해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복지재단 해외구호센터가 위치한 라오스 등 해외 난치병 어린이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해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대상자 가운데 치료비를 후원받은 뒤 본격적인 치료를 진행해 병세가 크게 호전된 사례도 적지 않다.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해 남녀노소, 종교, 지역 등 구분을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난치병 환아돕기 철야정진은 가장 힘들고 절실한 상황에 처한 난치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자비와 희망을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지난 20년간 난치병 어린이의 쾌유를 발원하며 동참해 준 수많은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스님은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더 많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철야정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온라인 모금으로 전환됐다. 9월 한달간 3000배 철야정진 모금계좌(하나은행 271-910005-95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를 통해 동참 가능하다.

'난치병 환아 돕기 3000배 정진' 숫자로 보는 20년

도움 준 난치병 환아	445명
지원한 치료비	13억 2000만원
누적 참여인원	1만 5000여명
2001년 첫 모연	600만원
2019년 모연금	1억 7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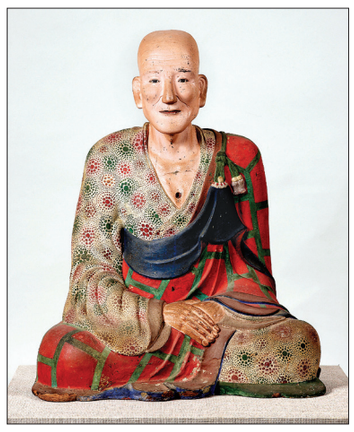
불교 대표 나눔프로그램 안착
20년 간 동참인원 1만5000명
13여 억원 모연… 445명 지원
올핸 코로나19로 온라인 모금



코로나에도 백만원력 동참 '감동'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을 맞아 전국에서 백중법회가 봉행된 가운데 9월 2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백중 49일 기도회향법회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백만원력결집불사 발우저금통에 합장하고 있다. 백중 회향에서 불자들은 선망부모 극락왕생과 유주고혼 천도 뿐만 아니라 백만원력 결집불사 동참을 통해 상생의 삶을 서원했다. 조계사는 백만원력 기금으로 1억 2424만원을 전달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왕건 스승 '희랑대사상'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9월 2일 지정예고
실제 고승 재현 유일 조사상
조사과정서 '건칠'기법 확인
가슴의 '흉혈'까지 표현 눈길



실제 고승을 재현한 유일한 조사상인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사진)'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시대 고승의 실제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3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 · 지정 예고되는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이하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신라 말~고려 초까지 활동한 고승인 희랑대사(希朗大師, 생몰연대 미상)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희랑 대사는 화엄학에 조예가 깊은 학승이었으며,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대사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왕건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해인사 중창에 필요한 토지를 하사하기도 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祖師像 · 僧像)으로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했지만, 한국에는 유례가 거의 전하지 않는다. '건칠희랑대사좌상'만이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품으로 전래되고 있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조선 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해인사의 해행당, 진상전, 조사전, 보장전을 거치며 수백 년 동안 해인사에 봉안됐던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이덕무(1741~1793)의 〈가야산기(伽倻山記)〉등 조선 후기 학자들의 방문기록이 남아 있어 전래경위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준다.

또한 지정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 과학 조사 결과,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얼굴과 가슴, 손, 무릎 등 앞면은 '건칠(乾漆)'로,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앞면과 뒷면을 결합한 방식은 보물 제1919호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처럼 신라~고려 초기의 불상조각에서 확인되는 제작기법이어서 조각상의 제작시기를 유추하는 데 참고가 된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의 또 다른 특징은 '흉혈국인(胸穴國人, 가슴에 구멍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의 별칭을 상징하듯, 가슴에 작은 구멍(폭 0.5cm, 길이 3.5cm)이 뚫려 있는 것이다. 이 흉혈(胸穴)의 유래는 해인사 설화에서 희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 정진을 돕기 위해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고승의 흉혈이나 정혈(頂穴, 정수리에 난 구멍)은 보통 신통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1024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칠기법이 적용된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육체의 굴곡과 피부 표현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선 후기에 조성된 조사상들과 달리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인다"면서 "우리나라에 문헌기록과 현존작이 모두 남아있는 조사상은 '건칠희랑대사좌상'이 유일하다. 제작 당시의 현상이 잘 남아 있고 실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면의 인품까지 표현한 점에서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비롯해 보물로 지정 예고한 '간이벽온방(언해)'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봉축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국보승격

범어사 소장의 『삼국유사』 권4~5(국보 제306-4호)가 국보로 승격되었다.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는 조선 태조 3년(1394년) 경주(慶州)에서 만들어진 목판을 찍어 만든 조선 초기본으로 현존본 중 가장 빠르며 인출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권5의 시작 부분에 『삼국유사』를 집필한 장소인 경북 군위의 '인각사(麟角寺)'와 저자 '일연(一然)'이 표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특히 조선 초기본의 경우는 완질본의 형태가 아닌 개별 권으로 각각 다른 주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상태로 범어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스님이 집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사찰 내에서는 범어사가 유일하게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부산의 자랑이며, 금정총림 범어사의 정신을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